

# 여성의 취업경력(work career)과 자녀양육 :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차 승 은(한양대 연구교수)

## I. 들어가며

지금까지 출산정책은 인구학적, 경제적 논리가 주도되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막상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삶이나 그 가족의 의사결정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여성의 취업여부 역시 인구학적 변수로 인식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취업과 출산행태에 대한 비교적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최근에 와서이다. 아직까지도 출산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취업/비취업의 이분법적인 논리 하에서 출산행태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여성의 취업, 그리고 가족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여성의 취업경로는 그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취업경로에서의 다양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취업과 출산의 관련성을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인구학적 논의에서는 간과해 온 여성의 직업역할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각각의 여성 취업 경로에서 나타나는 출산행태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취업경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특히 출산 및 자녀양육을 여성들은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선 각 국가들에서 초저출산 경향이 관찰되면서 여성의 취업과 출산행동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라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고, 더불어 자녀출산 및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그런데, 여성의 역할, 다중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삶과 복지에서 노동권에 못지 않게 부모권이나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신기영·옥선화, 1999; 차승은, 2005; 차승은·한경혜, 2006). 이는 비단 역할에 관한 논의 뿐 아니라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분석한 박수미(2002)의 연구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이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생애과정에서의 사건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 역시 한국의 기혼여성의 취업 단절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들의 이면에는 ‘출산’이라는 사건이 개입해 있고, 예상외로 이 출산

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효과가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강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박경숙·김영혜, 2003).

관련된 논의가 더 진행되면서 최근 연구들은 여성의 취업증가, 취업연속성의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단일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Sleeboos, 2003). 여성취업률이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시기마다 변화의 방향과 수준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과 출산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경로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말해준다. 즉, 출산율과 취업의 상호관련성은 여성의 취업자체가 아니라 직종이나 근무환경 그리고 부모됨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같은 중간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녀출산기를 조명하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직업역할과 출산을 조절하는지 그 구체적인 정보에 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극히 최근에 들어서 일과 가족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성들의 적응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취업/출산 조절 양상이 여성의 취업여부, 종사상의 지위, 직업에 대한 충성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는데(민현주, 2007; 윤소영, 2005; 김두섭 외, 2008; 장지연·부가청, 2003; 황정미, 2005),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성의 취업/출산의 관련성에 대한 상호모순되는 결과가 공존하는 것은 실제로 여성의 취업/출산행태가 연령, 계층과 같은 특성에 그 경험과 전략이 증화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여성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이 각각 어떠한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출산시기에 기혼여성들이 취업 상태 변화 유형, 즉 취업경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그들은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건사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시퀀스(sequence) 분석(박경숙·김영혜, 2003; 은기수·박수미, 2002)을 통해 여성취업과 출산행태에 따른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의 취업/출산유형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여 코호트별 차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코호트를 중심으로 결혼부터 자녀출산기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두고, 이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업경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자녀출산과 양육기를 하나의 이행과정으로 분석해 왔지만, 장지연의 지적)을 근거로하여 이 연구에서는 결혼부터 각 자녀의 출산시점에 이르는 시기에 노동시장에의 지속과 이탈의 조합을 가지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 출산까지의 관찰기간 동안 여성들의 취업조절형태와 특히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시기마다 취업을 지속하는 사람들과 지속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차이점에 대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2) 첫째 자녀 출산, 둘째 자녀 출산, 셋째 자녀 출산 그리고 2005년 현재까지 네 시점의 취업여부

---

1) 장지연(1997)의 지적처럼 출산을 전후한 시기의 여성의 고용단절과 재취업 행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생존분석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자녀출산기와 출산직전까지 노동시장 이탈률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탈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장지연, 1997). 이 상승과 하강하는 시점에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직종, 임금을 비롯한 직업상황이나 가족상황 그리고 직업과 가족에 대한 태도에서 상이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동일한 범주로 묶어 이탈율을 계산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할 소지가 높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연 령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		
20대	518	(15.1)	하위20%(149만원 이하)	720	(21.0)
30대	2189	(63.7)	중간집단(150-399 이하)	1977	(63.7)
40대	727	(21.2)	상위 20%(400만원 이상)	727	(21.2)
교육수준			결혼지위		
고졸 이하	2088	(60.8)	기 혼	3273	(95.3)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졸	1271	(37.1)	이혼 및 사별	134	( 3.9)
대학원 이상	74	( 2.2)	별 거	27	( 0.8)
취업 여부			평균자녀수	1.7	(0.77)
취 업	1807	(52.6)			
비취업	1627	(47.4)			

주: 기혼에는 46명의 재혼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를 가지고 여성들의 취업경력을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에 속하는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취업특성, 자녀출산행태, 그리고 출산정책선호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 II. 본 론

### 1. 분석방법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에서는 기존의 출산력조사와는 다르게 20세에서 44세 기혼여성 결혼과 출산행위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여성의 일/가족을 경험하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여성들이 실제로 자녀출산이 이루어지는 각 시기마다 어떻게 자신들의 취업조건을 조절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조사 자료에는 첫째 자녀부터 다섯째 자녀까지 출산을 전후로 6개월의 취업 상태가 나타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셋째 자녀가 분석과 해석상의 간편성을 위해 첫 자녀, 둘째 자녀 그리고 셋째 자녀까지의 출산 전후의 취업 상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3,800개의 사례 중에서 기혼여성 3,434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3,434명의 응답자 가운데는 아직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기혼여성 27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자녀를 낳은 여성들 가운데서는 첫째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인 경우로 대상자를 제한하였다(<표 1> 참조).

### 2. 분석결과

#### 가. 각 출산시점의 취업 조절실태와 취업중단의 주요 이유

<표 2>는 각 자녀 출산 전 6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사이의 기혼여성의 취업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녀출산시기에 비취업 여성의 비율이 취업여성에 비해 높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녀 출산시에는 이미 직업을 그만두었거나, 그 시기에 중단하여 비취업상태에 있는 사례가 전체의

<표 2> 자녀 출산시점의 취업조절 실태

첫째 자녀 출산시 취업상태 (n=3,160)				둘째 자녀 출산시 취업상태 (n=2,400)				셋째 자녀 출산시 취업상태 (n=332)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중단	조절a	지속	비취업	중단	조절a	지속	비취업	중단	조절a	지속
2,001	582	191	386	1,944	92	124	240	277	14	8	33
(63.3)	(18.4)	(6.0)	(12.2)	(81.0)	(3.8)	(5.2)	(10.0)	(83.4)	(4.2)	(2.4)	(9.9)

주: a. 조절은 시간조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혹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경우를 말한다.  
자료: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표 3> 각 자녀 출산시의 취업 중단 사유

첫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 (n=3,160)		둘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 (n=2,400)		셋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 (n=332)	
1. 직접 키우고 싶어서(43.4%)		1.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37.3%)		1.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37.3%)	
2.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20.2%)		2. 직접 키우고 싶어서(21.7%)		2. 직접 키우고 싶어서(23.1%)	
3.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12.4%)		3.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18.1%)		2.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23.1%)	
4. 산후조리 때문에(6.4%)		4. 산후조리 때문에(10.8%)		4. 아이 맡길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7.7)	

자료: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80%가량 된다. 이는 여성이 출산기에 접어들수록 노동시장의 이탈률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비취업 경향은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 출산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둘째 자녀 출산시기만을 살펴보면, 직장이 있다가 일을 그만두는 여성의 비율이 다른 시기에 비해 다소 낮았다. 둘째 자녀 출산시에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휴직 및 근무조건을 조절하거나 그대로 지속하는 경우의 비율이 다른 두 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둘째 자녀 출산시기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특별히 취업여성들보다도 지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수가 매우 적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셋째 자녀 출산 이후 시기에 취업여성은 매우 소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녀 출산 당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 자체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직장을 중단한 경우의 비율도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근무조건을 조절하거나 지속한 경우도 드물었다.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이 대부분 전업주부라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3>에는 각 자녀 출산시기를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응답자들의 취업중단 사유가 제시되어 있다. 취업중단 사유의 1, 2 위는 '직접 키우고 싶다', '아이 맡길 곳이 없다'로 나타났다. 제3 순위에는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없어서'를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후조리의 문제',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발생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와 같은 부분도 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모성'을 대신할 보조양육자에 대한 신뢰부족이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주요 사유로 나타난다.

<표 4> 첫아이 출산, 둘째 아이 출산, 셋째 아이 출산시점의

취업상태와 인구학적 특성

(단위: 평균값, %)

	첫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n=3160)		둘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n=2400)		셋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n=332)	
	비취업 (n=2584)	취업 (n=576)	비취업 (n=1968)	취업 (n=364)	비취업 (n=275)	취업 (n=42)
<연령> 평균연령	35.35	35.50	36.15	36.45	36.78	37.22
<자녀터울> 첫 자녀와 터울(개월)	-	-	33.64	37.64	74.65	72.30
<교육수준> 고졸 이하	67.2	41.8	69.3	48.8	74.6	63.4
전문대 이상	32.8	58.2	30.7	51.2	25.4	36.6

주) 밑줄 친 수치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자료: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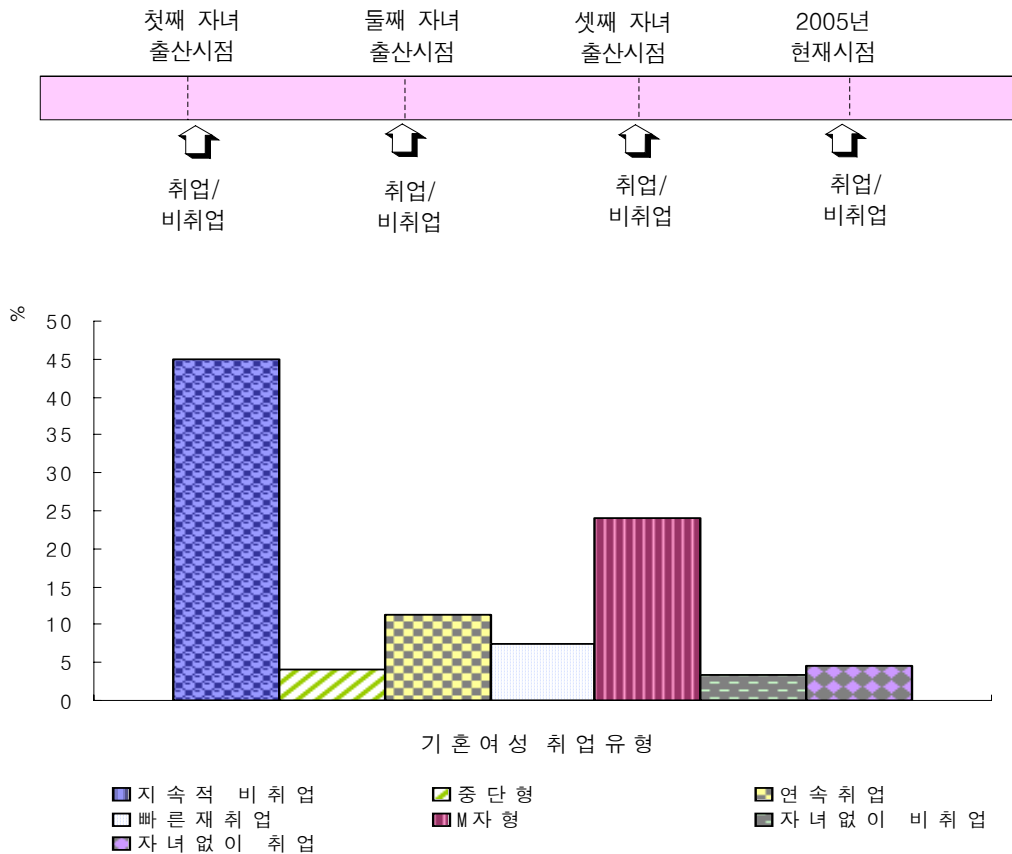
#### 나. 각 자녀출산 시기별 비취업·취업여성의 특성 비교 결과

<표 4>는 각 출산시에 취업과 비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여성들이 실제로 상이한 집단특성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 출산까지 각 시기에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이는 동일한 연령대내에서도 일과 출산에 대한 행위가 차별적인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시기 만을 보게 되면 출산 전후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간에는 유의미한 학력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취업여성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셋째 자녀까지 출산한 경우에는 두 집단 간의 교육수준에서의 격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셋째 자녀 출산을 한 집단의 경우 교육수준과는 무관하게 취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고학력 여성이라도 셋째 자녀이를 갖게 되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터울과 각 자녀출산기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 가운데 출산 당시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들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이 터울(출산간격)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는 둘째 자녀이 출산시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여성들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적극적으로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다. 여성의 취업경력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특성, 출산행태

이러한 각 출산시기별 취업상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의 가족 및 노동역할 유형을 구성해 보았다. 아래의 그림은 유형화를 위해 관찰한 총 네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셋째 출산까지를 다루고 있지만, 2005년 현재까지 둘째 및 셋째 출산에 이르지 못했거나 첫째 출산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출산이 없는 여성, 그리고 둘째 출산까지만 완료한 경우들도 분석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렇게 유형화한 결과, 기혼여성의 일/가족 패턴은 아직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두 유형과 이미 출산경험이 있는 다섯 유형을 합하여 모두 7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그림 1>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기부터 현재까지 취업경력으로 살펴본 노동 및 가족역할 유형

<그림 1>은 분석을 시도한 3,434명 여성의 7가지 유형과 그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지속적 비취업’은 그야말로 각 자녀출산 전후 1년과 현재시점에 비취업으로 나타나는 여성들이다. 물론 이들이 자녀출산 사이사이에 일시적으로 취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이 적어도 각 자녀 출산기를 전후한 시기에 직업이 없었고, 관찰시점에서도 직업이 없다는 점은 다른 유형과는 유의미하게 비취업의 기간이 길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유형을 ‘지속적 비취업’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은 전체의 45%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 비취업형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재취업형으로 전체 여성의 31.6%로 나타났다. 이 재취업형은 전형적인 M자형 취업과 빠른재취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빠른재취업형은 첫째 자녀 출산시 비취업 상태였지만 첫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바로 복귀한 경우이다. 분석대상의 7.5%가 이러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재취업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자녀만을 둔 여성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자녀출산기에 한시적으로 비취업 상태에 있다가 취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빠른재취업형 중에서도 극소수이기는 하나 자녀가 둘 이상인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첫째 자녀 때와는 다르게 둘째 및 셋째 자녀 출산시에도 여전히 취업한 상태로 나타나며, 현재까지도 취업상태로 나타난 사례들이다.

또 다른 재취업 형태는 일반적인 여성의 취업곡선(M자형)의 사례들로서 자녀출산기를 모두 지나고 취업한 사례들이다. 전체의 24.1%를 차지하는 이 유형은 앞서 첫째 자녀 출산 후에 바로 복귀한 빠른 재취업형태와 차별화하기 위해 둘째 자녀 출산시기까지 비취업 상태였고, 관찰시점인 2005년에 취업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자녀 셋을 둔 경우,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자녀 출산 전후에는 모두 비취업 상태로 나타나지만 현재는 취업한 상태인 응답자들도 느슨한 M자형이라는 점에서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다만, 이러한 느슨한 M자형 사례는 이 자료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인지 그 수가 매우 적었다.

각 출산시기에 취업상태에 있었고, 현재에도 취업하였다고 응답한 사례들은 ‘연속취업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전체의 11.3%에 해당한다. 이들 연속취업형에는 출산전후로 취업상태는 유지하면서 업무조정, 시간조정,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환경을 전환한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다만, 앞서 지속적인 비취업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들 연속적 취업형들도 출산 전후 1년은 취업하였지만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비취업상태에 있었는지는 이 유형화 작업만 가지고는 알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각 자녀 출산을 전후하여 1년간 취업상태를 유지하였고, 조사시점에도 취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 다른 유형들과는 분명 차별적이었다.

자녀출산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직까지 비취업상태로 남아 있는 ‘중단형’의 사례는 모두 138명으로 이들은 분석대상 기혼여성의 4%를 차지한다. 이들 138명의 대부분은 첫째 자녀 출산시점에는 취업상태에 있었지만, 이후 둘째 자녀 출산 혹은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조사시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출산과 양육을 계기로 직업역할을 그만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두 유형은 조사시점에 아직 자녀가 없는 무자녀 기혼여성들로 이들은 총 274명이었다. 이중에서 조사시점에 취업을 한 여성은 약 56%를 차지하였다. 이들이 전체 분석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사례에서 비취업과 취업의 사례가 각각 3.5%, 4.5%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유형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출산행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 5>의 유형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지속적 비취업형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20대에서 지속적 비취업형의 비중(49.8%)은 30대나 40대보다 약 6~10%p 더 높다. 아직 어린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이 직업대신 자녀출산과 양육에 몰입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이 표에서 20대에서 지속적 비취업형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형태는 자녀 없이 취업한 경우(16.8%)이다. 즉, 20대는 취업을 하였거나, 혹은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두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그에 비해 연속취업형이나 재취업형처럼 출산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20대 전체(518명)의 18%에 지나지 않았다.

빠른재취업형은 30대에서 지속적비취업형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30대의 특징은 앞선 20대 기혼여성에 비해 연속취업, 빠른재취업 그리고 M자형취업까지 일-가족 양립을 이루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전체의 44%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다만, 여전히 30대 기혼여성 중에는 자녀 출산으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즉 자녀출산 및 양육과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막 결혼해서 아직 아이 없이 취업해 있는 사례들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40대 기혼 여성에 따른 유형분포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 비취업형이 40대 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30대에 비하면 그 비율이 다소 줄었고 또한 중단형의 비중도 30대보다는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취업의 형태,

<표 5> 여성의 취업경력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평균값, %)

	현재 취업				현재 비취업		
	취업 (자녀없음)	연속취업	빠른 재취업	M자형	중단형	지속적 비취업	비취업 (자녀없음)
사례수	155	388	256	826	138	1540	119
<인구사회학적특성>							
연령							
20대	16.8	8.9	4.8	5.8	1.9	49.8	12.0
30대	2.7	11.7	8.0	24.6	4.8	45.9	2.2
40대	1.2	11.9	7.7	36.0	3.3	38.7	1.1
여성평균연령(만)	29.7	35.3	35.2	37.4	35.4	34.3	30.1
현재 남편 소득(만원)	194.5	252.2	217.4	216.3	282.9	254.5	200.9
여성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2.5	7.5	8.1	30.2	2.8	46.0	2.9
전문대~4년제	7.7	16.1	6.2	15.2	6.0	44.5	4.3
대학원 학력 이상	8.1	37.8	10.8	6.8	4.1	25.7	6.8

자료: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특히 M자형 형태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와 관련해서 유형별 기혼여성들의 평균연령을 산출해 보면, 우리가 M자형이라고 구분한 유형은 다른 유형들보다 유의미하게 연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두 유형의 기혼여성(취업, 비취업모두에서)의 평균연령은 나머지 다섯 유형의 여성들보다도 유의미하게 어리게 나타났다. 중간연령에 해당하는 중단형, 빠른 재취업형, 연속취업 그리고 지속적인 비취업형에 속하는 여성들의 연령차는 매우 근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5>에는 유형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하기 위해 현재 남편의 소득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남편소득으로 볼 때, 중단형이 282만원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남편의 소득이 많았다. M자형이나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수준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자녀를 두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 평균연령이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남편 역시 아직은 직업경력을 쌓아하는 단계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낮은 임금은 짧은 어린연령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짧은 직업경력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에 비해 M자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다. 남편의 임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들이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학력수준에서의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집단에서는 비중이 높은 유형이 지속적인 비취업형, M자형 그리고 빠른 재취업형 집단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여성들은 연속취업형, 지속적 비취업형, 빠른취업형 그리고 자녀없이 취업한 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편의 소득수준과 연관 지어 보면, M자형에 속하는 여성은 빠른재취업형과 함께 다른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고졸이하의 학력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M자형의 경우 그들 가족이 취약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들의 취업은 생계유지를 위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자녀 없는 취업여성과 연속취업형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취업상태로 나타나는 4개 유형(자녀없이 취업, 연속취업,



<표 6> 여성의 취업경력별 현재 직업사항 (단위: 평균값, %)

	현재 취업				현재 비취업		
	취업 (자녀없음)	연속취업	빠른 재취업	M자형	중단형	지속적 비취업	비취업 (자녀없음)
<취업경력>							
결혼 전 취업경험(비율)	92.3	96.1	75.8	75.3	97.1	73.4	72.9
현재 여성 소득(만원)	135.42	156.50	99.69	88.51	-	-	-
현재 종사상 지위							
상용직	14.6	36.0	11.7	37.7	-	-	-
임시 및 일용직	7.9	7.5	17.6	67.0	-	-	-
자영 및 고용주	5.0	22.8	18.7	53.4	-	-	-
무급종사자	3.7	27.6	19.9	48.8	-	-	-

자료: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재취업 1.2)만을 따로 비교해 보면, 같은 취업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학력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서는 자녀출산기의 취업유지/단절의 결과(outcome)로서 직업영역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여성의 78.4%가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보게 되면, 대체로 70% 후반대에서 90% 후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혼여성들의 대다수가 결혼 전에도 취업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 중에서도 연속취업형과 중단형의 경우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결혼 전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재취업형이나 지속적인 비취업형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빠른재취업형이나 M자형은 결혼 전에는 취업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출산 후에 새롭게 취업을 선택한 사례들이 명확해진다. 더불어서 지속적인 비취업형의 경우에는 이들이 처음부터 비취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이라는 가족사건을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유지 및 단절의 결과 기혼여성의 50%에 가까운 비율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 가운데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연속취업형으로 이들의 임금은 평균156만원 수준이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유형은 M자형에 속하는 여성들로 이들의 평균소득은 88만원이었다. 연속취업형과 비교해 할 때, 약 1.8배가량 적은 수준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취업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현재 종사상 지위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취업한 기혼 여성 중에서 M자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다보니 M자형은 전반적으로 종사상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M자형은 상용직보다는 무급종사자 그리고 임시일용직에 해당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반면에 연속취업형의 경우는 무급종사자나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더 높아 M자형과는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빠른재취업형은 M자형과는 약간 다르게, 무급종사 및 고용주·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 없이 취업한 기혼여성들은 종사상 지위상으로 볼 때 상용직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현재 출산행태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표 7>에서 유형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단계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현재 자녀가 있는 여성 중에서는 M자형에 속하는 여성들이 다른 유형보다 어린나이에 결혼한 것

<표 7> 여성의 취업경력별 결혼 및 출산행태 (단위: 평균값, %)

	현재 취업			현재 비취업			
	취업 (자녀없음)	연속취업	빠른 재취업	M자형	중단형	지속적 비취업	비취업 (자녀없음)
<결혼 및 출산행태>							
초혼연령(만)	27.3	25.6	25.1	24.0	25.1	24.9	27.2
1997년 이전 결혼	0.5	10.7	6.0	35.5	4.3	42.6	0.4
1998년 이후 결혼	12.5	12.7	7.8	4.5	3.4	49.8	9.4
첫아이 연령(만)	-	8.4	8.7	12.5	9.1	8.4	-
결혼-출산시기(개월)	-	18.1	18.9	13.1	15.2	16.1	-
총출생아수(명)	-	1.7	1.3	2.1	1.9	1.8	-
출산기간(개월)	-	58.6	53.3	75.8	88.5	73.7	-
추가자녀계획있음(%)	79.6	17.3	25.1	3.0	8.9	15.6	87.7

자료: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결혼시점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결혼 코호트를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sup>2)</sup> M자형에 속하는 기혼여성들은 1997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에 비해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는 자녀 없이 취업 혹은 연속취업의 형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지속적비취업형의 비중도 이전 코호트에 비해 높다. 한편, 재취업의 경우만을 보게 되면, 1998년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는 M자형에서처럼 자녀 양육기를 기다린 후에 취업을 하기 보다는, 첫아이 출산 후 바로 취업하는 빠른재취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물론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의 대다수는 지속적 비취업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의 취업경력도 유동적이다. 이들이 빠른재취업형의 경로를 택할지 아니면 자녀양육기를 충분히 갖은 후에 취업하는 M자형으로 돌아설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98년 이후에 결혼한 기혼여성들의 경우 지속적 비취업형을 제외하면 97년 코호트보다 취업·비취업의 유형이 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차이점은 98년 이후 결혼코호트가 97년 이전의 결혼코호트와는 상이한 취업경력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첫아이 연령을 비교해 보면, M자형의 첫 자녀 만 연령이 12.50세로 8~9세로 나타난 유형들에 비해 약 3~4세가량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으로 나타나는 초혼연령, 첫출산까지 간격이 길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M자형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자녀연령은 보다 가시적이며 분명한 차이로 나타난다. 즉, 이들 M자형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가족생활주기의 측면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일찍 결혼하고 가족형성기를 완료하고 이제 자녀교양육 및 교육기로 접어든 것으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에서 출산에 이르는 간격은 M자형이 13개월로 나머지 유형들이 17~18개월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다소 짧았다. 빠른 취업형의 경우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결혼에서 첫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었는데, 가장 짧게 나타나는 M자형과 비교해 보면, 첫 출산시기가 대략 평균 6개월이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지난 3월의 통계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결혼부터 첫 출산까지 평균소요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개월 수준이었다.

총출생아수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 가운데서 M자형은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가 2.11명으로

2) 결혼코호트를 1997년으로 구분한 이유는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는경점과 이 시점을 전후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합계출산률의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인구학적 논의에 근거한다.

<표 8> 여성의 취업경력별 출산정책효율성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평균값, %)

	현재 취업				현재 비취업		
	취업 (자녀없음)	연속취업	빠른 재취업	M자형	중단형	지속적 비취업	비취업 (자녀없음)
<b>&lt;출산정책효율성&gt;</b>							
축하금	11.7	5.2	9.4	5.7	6.5	6.7	16.1
불임치료 및 태아 산모건강지원	16.9	4.6	9.0	6.8	3.6	9.4	17.8
산전 및 육아휴가, 시간탄력제	27.3	31.7	22.3	22.8	25.4	20.1	19.5
세제혜택	22.1	18.0	24.2	24.8	18.1	27.5	16.9
보육시설확대 및 수혜 아동확대	18.2	32.0	21.9	23.6	34.1	23.9	20.3
기 타	0.0	3.4	2.3	3.0	3.6	2.4	2.6
다자녀 가족 경제적 지원과주거 안정성 보장	3.9	5.2	10.9	13.3	8.7	10.0	6.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 체	155	388	256	826	138	1540	119
전체%	4.5	11.3	7.5	24.1	4.0	45.0	3.5
자녀 있음%		12.3	8.2	26.3	4.4	48.8	

자료: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가장 많았다. 그에 비해 총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집단은 빠른 재취업형이었고, 이들의 총출생아수는 1.3명이었다. 한편, 연속취업형, 중단형, 지속적취업형의 총출생아는 1.7-1.9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출산기간을 살펴보면, 중단형이 평균 88개월로 다른 5개 취업유형 가운데 출산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빠른재취업형의 경우는 평균출산기간이 가장 짧았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추가자녀계획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사례들에서 자녀출산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가 하면, 현재 한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 가운데서는 연속취업형과 빠른취업형에서 자녀를 한명 더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라. 여성의 취업경력별 출산정책 요구도

이 조사 자료에서는 우선순위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의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여성의 취업경력별로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제 1, 2순위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표 7>은 여성의 취업경력별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정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를 조사한 각 항목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들이 지적인 정책 선호의 제1순위의 분포에서는 취업경력별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아직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출산축하금이나 불임 및 산모건강지원에 대해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연속취업형의 경우산전육아휴가나 시간탄력제,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직장 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항목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비 취업형으로 대표되는 중단형이나 지속적인 비취업형들 역시 보육시설과 그 보육수혜아동의 확대를 다소 높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정책요구

에서 제2순위로 지적한 사항은 “세계해택”으로 이 7집단이 모두 이 동일한 항목에서 거진 30%에 가까운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제1순위로 나타나는 차이점들의 이면에는 개별가정의 경제적 안정 확보가 출산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 Ⅲ. 나가며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 중에서 3,434명의 여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자녀출산과 양육기를 거치면서 비취업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의외로 길며, 직업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소위 ‘전업주부’의 수적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많은 전업주부들이 교육수준이나 기타 자신이 보유한 인적자본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세계의 선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출산시기에 부모중심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 결혼 전의 비교적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전후하여 직업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직까지 여성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자녀 출산과 양육기를 지난 이후에 재취업을 모색하는 M자형이 기혼여성의 일반적인 취업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의 지적과도 일치한다(박경숙·김영혜, 2003; 박수미, 2006). 이러한 재취업형의 존재는 생애과정에서 일과 가족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순차적인 양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여성들이 일과 가족역할의 요구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하나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

셋째,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낮은 출산율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유형은 연속취업형이다. 이 연구에서 연속취업형에 속하는 여성들은 현재 직업지위나 소득에서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들에 비해서도 취업경력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출산시기에 취업경력의 단절이 크지 않았던 이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을 꾸려감에 있어서도 비취업으로 남아 있거나 취업을 중단한 사례들(중단형, 지속적 비취업형)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넷째, 최근 기혼여성 코호트를 중심으로 M자형의 변형으로 생각되는 빠른 재취업형(가과른 M자형)이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들 빠른재취업형의 행보는 기존의 M자형 여성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아직 자녀출산을 완료하지 않은 단계에서, 즉 첫 자녀 출산 이후 바로 재취업을 한 경우이다. 이들 중의 대다수는 자녀가 현재 한명이며, 이들의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 비율역시 높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첫 출산시기나 둘째 자녀 출산까지의 간격이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고, 자녀수도 다른 유형에 비해 적었다. 즉, 빠른재취업형과 M자형은 모두 자녀출산시기에 취업단절 후 재취업한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출산시기에 대한 조절방식은 상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빠른재취업형은 아주 최근에 첫 자녀를 출산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출산을 연기·조절하고 있다는 점은 1998년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출산율이 크게 낮아진 것과는 다소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앞으로도 여성의 취업경력 조절의 형태는 다양하게 분화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가령, 지속적 비취업형에 포함된 대부분의 여성들과 중단형의 경우에는 추후에 재취업을 할 경우 M자형처럼 자녀양육기를 지난 이후에 취업으로 이행할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기혼여성의 상당수가 포진해 있는 지속적 비취업형이 과연 M자형처럼 평균 2명의 아이를 낳고 자녀양육기를 충분히 갖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또한 중단형에 속하는 여성들은 교육수준, 남편의 임금수준 등에서 M자형의 여성들과는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재취업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M자형처럼 임시 및 일용직이나 관련 직종 및 임금수준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여섯째, 변화의 징조는 연령과 결혼코호트에서 차이에서도 드러났다. 기존의 M자형 취업형태는 다른 유형보다도 약간 선행하는 유형으로 생각되며, 기혼여성들이 취하는 대표적인 취업형태이기도 하나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기혼여성의 취업의 보편적인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형적인 M자형태의 취업경로를 택하는 여성들은 연령대도 높았고, 대부분 1997년 이전에 결혼코호트에 속했다. 그에 비해 최근의 결혼코호트에서는 M자형을 비롯하여, 연속취업형, 빠른취업형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경로들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빠른 재취업형이나 연속취업형은 자녀출산이 이루어지는 중에 취업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M자형과는 상이하였다. 가령, 빠른재취업형은 상대적으로 젊은 기혼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첫째 자녀 출산 후 바로 재취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생계에 필요하면 출산간격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취업복귀를 미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M자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빠른 재취업형은 M자형처럼 취업단절을 경험하였지만, 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직업의 종사상 지위는 무급종사자 및 임시일용직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분포한다. 이는 빠른 재취업을 행함으로써 취업경력의 단절을 짧게 가져갈 수 있고 따라서 직업선택의 폭도 그만큼 다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 기혼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행태를 조절하면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여성의 일가족역할의 조절양상은 더 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업경력별 출생아수, 출산간격, 출산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여성은 출산간격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취업복귀를 미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기혼여성 코호트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 한정하지 않고 비롯한 보다 다양한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 더더욱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과 직업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더 다양한 직종과 직업의 출현을 예상할 때, 더 많은 젊은 기혼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패턴을 조절하면서 그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출산율이 다소 증가세에 있다고는 하나, 이는 김두섭(2007)의 지적처럼 경제위기 이후의 지연된 출산의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기혼여성의 취업경력의 다양성과 최근 코호트에서 나타나는 일/가족 역할의 조절양상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합계출산율 1.8까지 도달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여성의 삶의 변화와 그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 출산율이 지금의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지 혹은 보다 향상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의 취업경력의 다양성 증가부분은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노동시장에의 편입과 자녀출산·보육문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가정의 각기 다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장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정부가 새로마지 플랜에서 제시하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우처 제공과 같은 정책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과 양육 당사자들의 선택권과 차별적 환경을 고려하는 정교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족의 상이한 욕구와 수요를 살펴보는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 [참고문헌]

- 김두섭.(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서울: 집문당.
- 김두섭·차승은·송유진·천희란·김정석.(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민현주.(2007). 「엄마의 취업과 자녀터울에 관한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학』 41(3):106-126.
-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경제 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33-62.
- 박경숙·김영혜.(2003).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63-90.
- 박수미.(2002). 「한국여성의 '인적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25(1): 113-143.
- 보건복지부.(2005). 『새로마지플랜 20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자료, 2005.
- 신기영·옥선화.(1999). 「중년기 취업 여성의 가족 역할과 직업 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8(8):29-41.
- 윤소영.(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1-8.
- 은기수·박수미.(2002). 「여성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씨퀀스(sequence) 분석」, 『한국인구학』 25(2):108-138.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윤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희·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지연.(1997).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미국 기혼여성의 경우」, 『한국인구학』 20(2):5-42.
- 장지연·부가청.(2003).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65(11):149-179.
- 차승은.(2005). 「결혼 및 부모됨이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차승은 · 한경혜.(2006). 「남녀의 가족 역할 점유와 건강문제」, 『한국인구학』 29(2):167-194.

황정미.(2005).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21(3):100-132.

Sleebos, Joelle E.(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working papers.